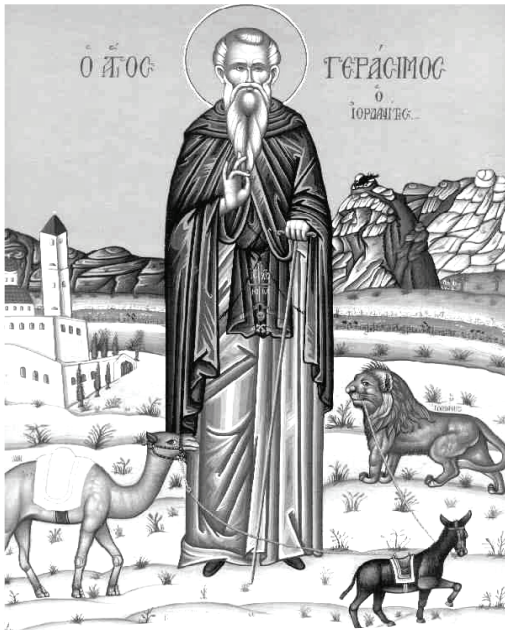




정교회 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게라시모스 요르단의 수사

사순절 제2주일

성 그레고리오스 팔라마스 대주교,
성 게라시모스 요르단의 수사

제6조 / 조과복음 6

성 대 바실리오스 성찬예배에서

- 제6조 부활 찬양송 / 82, A 216
- 주일 입당송 / 14, A 42
- 주교성인 찬양송 / 229, B 263
- 성당 찬양송
- 사순절 시기송 / 223, B 276
- 사도경 : 히브리 1,10-2,3 / 229, 봉독서 448
- 복음경 : 마르코 2,1-12 / 138, B 94
- 성모송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 / 62, A 171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성인들이 삶으로 전해주는 구원의 말씀 성 게라시모스 요르단의 수사

우리 교회에서 3월 4일에 축일로 기념하는 요르단의 성 게라시모스 수도사의 삶은 매우 감동적이고 교육적입니다.

5세기에 사셨던 성인은 맹수인 사자까지도 사랑하셔서 결국 성인의 친구가 되게 하실 만큼 완전하고도 거룩한 수련의 삶을 사셨습니다. 동물에 대한 사랑은 우리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사람에 대한 동물의 신뢰는 첫 피조물들이 머물렀던 낙원을 생각나게 합니다. 즉, “하느님께서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하나하나 진흙으로 빚어 만

드시고, 아담에게 데려다 주시고는 그가 무슨 이름을 붙이는가 보고 계셨다.”(창세기 2:19)라는 말씀처럼 낙원에서는 사람과 동물이 동료였습니다.

동물이 자기 주인의 무덤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우리에게 희귀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게라시모스 성인이 안식하셨을 때, 성 게라시모스의 동료였던 사자도 주인인 성인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성인의 무덤 위에서 크게 울부짖고 함께 숨을 거두었습니다.



주님과 협력

협력 또는 협동이란 두 사람 이상이 힘을 합하여 서로 도우며 함께 행하는 일이다.

사도 바울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며 전도 사업을 하던 때 자신을 도와 일하는 디모테오를 협력자라고($\Sigmaυνεργος$) 불렀다.(로마 16, 21) 이와 같이 모든 사도들이 선교 활동을 할 때에는 늘 많은 협력자들의 도움을 받으며 온 세상에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오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듯이 주님에 대한 참믿음을 갖고 중풍 병자 한 사람을 네 사람이 협동하여 도움으로써 환자의 병이 치유되고 구원받게 하는 모습이 우리 신앙인들이 따라야 할 참협력의 정신이다.

협력하는 정신은 우리의 구원의 역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조건이 된다. 즉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상호 협력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창조물들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과 계명을 듣고 이에 응답하며 따를 때에 비로소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탕자의 비유에서 볼 수 있듯이 자비로우신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한량없는 사랑을 늘 베푸셨다. 그러나 큰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타락한 생활로 인해 삶의 가장 밑바닥까지 살았던 작은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곁으로 다가왔다. 이를 본 아버지는 작은아들을 향해 달려가 포옹하며 입을 맞추고 다시 돌아온 아들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었다. 아들은 아버지를 향해 오고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달려가 그를 맞이하

셨다.

그러나 큰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늘 풍성하게 받고 있었지만 이를 깨닫지 못하고 화를 내며 아버지가 베푸는 만찬에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큰아들에게나 작은아들에게나 똑같이 큰 사랑을 베푸신다. 그러나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사랑의 결실이 다르게 나타난다.

교회 교부들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 배 만 배의 빠른 걸음으로 우리에게 다가 오시지만 우리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내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천 배 만 배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한 발자국도 우리를 향해 내밀지 않으신다고 하셨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우리들을 부르시며 그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가벼운 짐을 지고 따르라 하시면서 손을 내미신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주님의 자비를 깨닫지 못한 채 이에 답하지 않고 자신의 고집대로 살아간다.

주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응답하는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로가 디모테오를 가리켜 협력자라고 부르는 모습이다. 우리도 하나님의 협력자가 되어야 한다. 주님께서 부르시면 “주님 제가 지금 갑니다.”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 구원은 절대 일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주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듯이 우리도 쉬지 않고 열심히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나아가갈 때만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 다니엘 나창규 대신부



평화는 십자가에서 시작된다(2)

트리폰 수도원장

평화는 19세기 러시아 사로프의 성인 세라핌이 “평화를 획득하라. 그러면 네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교회의 삶에서 중심적인 주제이다. 우리가 각자 개인적으로 평화를 얻는 것은 회개와 함께 이루어지며, 그 순간은 생각을 바꾸어 완전해지는 길을 따라 가기로 결심할 때이다.

평화는 단지 하나의 어떤 관념이 아니라 변화를 만들어내는 적극적 힘이다. 우리가 예배에서 ‘온 세상의 평화’를 위해 기도할 때, 그것은 그저 이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위한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을 위한 평화, 동물들을 위한 평화, 식물들과 바위들을 위한 평화, 해와 달과 별들을 위한 평화를 위해 기도한다. 평화를 위한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그것이 하늘에서 오는 은혜이며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있다는 것을 깨닫는데, 그것은 그 평화가 그리스도의 평화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사람으로서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하느님의 평화’(필립비 4:7)이다.

참된 평화는 십자가 위에서 드러진 그리스도의 희생적 봉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평화는 희생과 상호의존적이다. 교회의 예배는 우리를 평화의 분위기로 이끌어주는데, 그것은 이런 평화가 하느님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평화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릴 때에만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올 수 있으며, 이런 평화는 희생을 요구한다. 우주의 변모는 우리 안에서 시작된다.

▶ 아타나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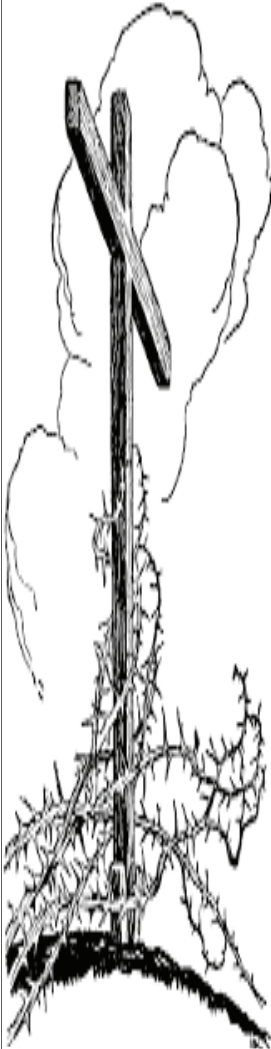


소 식

대교구

■사순절 예배 참여

올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벌써 사순절 기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사순절 여정의 마지막 종착지인 부활 대축일에 우리가 잘 도달하기 위해서, 적어도 한 번은 사순절에만 드리는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 석후대과, 성모 기립찬양 등 특별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시다.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 시간 안내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에서는 대사순절 기간 주 중에 **수요일 오후 5시, 금요일 오전 9시**에 두 번의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가 거행될 것입니다. 신자분들께서는 참고하셔서 착오 없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진급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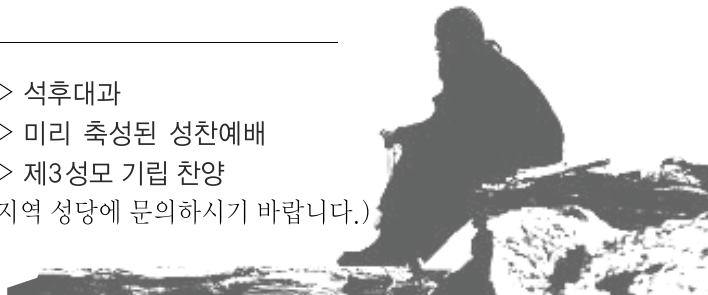
오늘 성찬예배 후, 점심 식사를 하고 새 학년을 맞이하는 주일학교 진급식이 있겠습니다. 부모님들도 꼭 함께 참여하여 우리 아이들이 새로운 학년을 맞이하여 건강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유익하게 보낼 수 있도록 기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신자 교리반

2018년도 봄학기 예비신자 교리반이 3월 둘째 주(3월 11일)부터 시작합니다. 3월~6월까지 약 12주 동안 매주 주일 예배와 공동 식사 후에 정교회가 고백하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함께 공부합니다. 정교회에 새로 나오신 분들 중에 정교회 신앙의 기본 교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당 사무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제3주간 예식

- 화·수·목요일 오후 5시 ▷ 석후대과
- 3월 7일(수) 오전 9시 ▷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
- 3월 9일(금) 오후 6시 ▷ 제3성모 기립 찬양
(자세한 예배 시간은 각 지역 성당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처 : 한국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 (02) 362-6371 / Fax (02) 365-2698 / www.orthodoxkorea.org